

2012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이호택 · 조명숙 부부를 만나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피난처가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호택 · 조명숙 부부는 이주노동자를 돕는 청년 활동가로 시작해 지난 30년간 난민 지원과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한 법학도는 사법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결국 법조인의 길을 포기했다. 법으로 사람을 돕는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과 마주쳤다. 1994년부터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다가 1999년 전쟁이나 박해 등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피난한 난민을 지원하는 NGO(사)피난처를 시작했다.

또 한 사람, 교사가 되고 싶었던 여대생도 눈앞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안정적인 교사의 꿈을 포기했다. 이주노동자를 돕다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아픔에 마음이 움직였고, 2004년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열었다. 그 공로로 이호택 · 조명숙 부부는 2012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청년 활동가로 시작해 30여 년, 이호택 · 조명숙 부부는 지금도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고 있다.

험한 길에 진리와 기쁨이 있다

“쉽지는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호택 · 조명숙 부부는 30여 년의 봉사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한 측은지심이 이들의 시작이었다면 30년을 꾸준히 난민과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남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는 기쁨이었다. 이호택(사)피난처 대표는 “제 좌우명이 ‘험한 길을 따르리라’입니다. 난민을 돕는 일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어려운 일이니까 한다’고

대답해요. 산악인들은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하던데 저도 비슷해요. 제 생각에는 진리에 이르는 길은 험한 길 쪽인거 같아요. 험하지만 새 길을 개척한다는 창조적인 기쁨이 있죠.”라고 말한다.

이호택·조명숙 부부는 서울 구로공단에서 이주노동자 돕기에 앞장섰고, 식량난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떠돌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며 제3국을 통한 탈출을 성공시켰다. 이들 부부의 활동은 2013년 난민법 제정과 함께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데 기여했다. 국내 최초 난민 지원 단체인 (사)피난처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으며 신뢰받는 난민 지원 기관으로 성장했다. 최초의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도 20주년을 맞았다.

난민은 우리 사회의 부담이 아닌 자원

(사)피난처는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난민들에게 법률, 통역, 거주, 의료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난민은 우리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자원이고,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귀한 존재라는 것이 이호택 대표의 생각이다. “저도 오랫동안 고시에 실패하는 시간

을 겪었지만, 지금은 난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고시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듯이, 난민들도 평생 난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인생의 한 단계일 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시각으로 난민들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난이 일상화된 지금의 세상에서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건 좋지 않아요.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죠.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과 북 양쪽을 다 이해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미래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북한이탈 청소년을 잘 교육시켜야 해요.”

이호택·조명숙 부부에게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은 그저 도와줘야 할 약자가 아니다. 시련을 뛰어넘어 한층 단단해진 사람들, 그리고 넉넉히 타인을 돕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서로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들 부부의 변치 않는 소망이다. 📖 글 편집부

지난 6월 서울 선유도공원에서 열린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난민과 (사)피난처 직원들.

